



수채화_유명애 작

성시화

“나라가 임하시오며(마6:10)”

47주년 2019년 춘천성시선교대회와 슬로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마6:10)”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전 사역의 주제였고 핵심이며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지역, 사람들이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시작되자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4:17)”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병자를 고치고 장애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며 귀신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속박을 풀어주신 다음에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자 패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 찾아온 저주와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신의 몸을 던지셔서 인생들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그 사회, 그 땅,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 70제자를 두 명씩 짝지어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눈앞에 있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되는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누가 높이 되고 많이 가지며 쾌락과 기쁨을 누릴 것인가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시종 일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만 초점이 모아져 있으셨습니다. 유연적인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교회의 골(Goal)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목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모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천국을 지금 여기서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미래의 천국, 완전한 천국에 갈 것이지만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시선교대회 주제를 하

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마6:10)”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성시선교대회, 교회성장전략세미나, 전도사관학교, 청소년·청년축제, 블레싱 춘천이 개최됩니다. 더불어, 월드비전에서 개최하는 “너와 나를 위한 달리기 : 2019 Global 6K for Water” 행사에 동참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춘천의 4백여 교회가 한마음으로 참여하기를 꿈꾸며 연합하여 함께 힘을 얻는 시발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춘천성시화도 47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힘을 모아야 합니다. 큰 교회는 연합하지 않아도 부흥이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작은 교회들은 내 코가 석자이니 이래저래 연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연합할 때 혼자서 할 수 없는 큰 부흥을 맞볼 수 있습니다. 연합은 손해가 아닙니다. 이득입니다. 이 효과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글. 박인관 목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광암교회)

CONTENTS

- 01 성시화
나라가 임하시오며
- 02 특집 1
2019 성시선교대회
- 03 특집 2
춘천에 불어오는 제네바 평화의 바람

- 04 특집 3
국제성시화대회
- 05 기획
3·1운동 100주년 기념 기획
- 06 군선교
진중침례식

- 07 군선교/사설
- 08 통일
시카고 한인족 선교 통일 서밋
- 09 영화/잠깐
천로역정

- 10 기관
CBSI
- 11 교계소식
- 12 알려드립니다/
후원자

♥ 후원참여하기 ♥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47주년 2019 춘천성시선교대회

- 일시 : 2019년 10월 6일(주일) ~ 12일(토), 오전 10시, 오후 7시
-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와 소양강댐 시민의 숲
- 강사 : 주강사: 김홍양 목사(수지선민교회, 강소형교회 훈련센터 대표)
전도집회강사: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회장)

◆ 프로그램소개

	10/6(주일)	10/7(월)	10/8(화)	10/9(수)	10/10(목)	10/11(금)	10/12(토)
오전 10:00		교회 부흥전략 집중세미나 (김홍양 목사)					글로벌 6K (소양댐 시민공원) 오전9시~오후1시
저녁 7:00	선교대회 (주강사 : 김홍양 목사)				전도사관학교 (이수훈 목사)	청소년축제 블레싱춘천	
	기독교연합회	홀리클럽	복지단체	선교단체	성시본부	성시본부	월드비전

◆ 성시선교대회 저녁집회

교회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영적 충만한 시간입니다.

- ▶ 강사_ 김홍양 목사(수지선민교회, 강소형교회 훈련학교 대표)
- ▶ 일시_ 10월 6일(주일) 저녁7시 ~ 9일(수) 저녁7시 (저녁 집회)



주강사
김홍양 목사

이번에 주강사로 초청된 김홍양 목사는 잠실에 선민성결교회를 개척하여 천여 명의 교회로 부흥시키고, 아홉 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하였습니다. 개척한 교회를 부목사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수지에 쓰러져 가는 교회에 자원하여 가서 3~4년 만에 400여 명으로 부흥시킨 목회자입니다. 강소형교회 즉 강한 소형교회를 만들기 위해 훈련학교를 개설하고, 2,500여개 교회의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 교회성장전략세미나 (오전)

성장이 멈춘 시대에 교회성장의 노하우를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김홍양 목사는 120여권의 부흥에 관한 책을 섭렵하고 전략들을 간파하고, 당신의 부흥을 바탕 삼아 실현 가능한 수많은 전략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아 초빙하였사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오셔서 부흥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 강사_ 김홍양 목사(수지선민교회, 강소형교회 훈련학교 대표)
- ▶ 일시_ 10월 7일(월) 오전10시 ~ 9일(수) 오전10시 (오전 집회)

◆ 전도사관학교

2018년 주강사였던 이수훈 목사께서 다시 초빙되어, 전도 사역자를 훈련하는 전도사관학교입니다. 성시본부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전도전략을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 ▶ 강사_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회장)
- ▶ 일시_ 10월 10일(목) 저녁7시

◆ 청소년·청년 찬양축제

다음세대의 향연, 찬양과 축제, 말씀이 어우르는 영적 잔치의 시간입니다.

- ▶ 일시_ 10월 11일(금) 저녁7시
- ▶ 주최_ 안산 YFC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선교단체)
- ▶ 경배와 찬양인도_ 디사이플스(Disciples)

◆ 블레싱 춘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잠언11:11)

개인과 가정, 춘천과 강원도,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중보하며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 ▶ 일시_ 10월 11일(금) 저녁9시 ~ 저녁11시
- ▶ 인도_ 이수형 목사(부이사장), 이병철 목사(부분부장)

◆ 너와 나를 위한 달리기 : 2019 Global 6K for Water

6Km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매일 걷는 평균 거리를 직접 달리거나 걸어보으로써, 아픔을 공감하고, 더 나아가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 위해 진행되는 기부런 행사입니다.

- ▶ 일시_ 10월 12일(토) 오전9시 ~ 오후1시
- ▶ 장소_ 소양강댐 시민의 숲
- ▶ 주최_ 월드비전

우리의 걸음이

World Vision
GLOBAL 6K FOR WATER

2019.10.12.(토) 09:00 집결
소양강댐 하류 주차장(시민의숲)

부품: 6km 달리기 & 걸기
*참가자 전원 기념 티셔츠 및 목걸이 제공
인원: 2,000명(선착순 마감)
참가비: 성인 20,000원
(미취학 무료, 학생 10,000원)
*참가비는 월드비전 특수위생수정제에 사용됩니다.

홈페이지: global6kforwater.com
문의: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 033-254-7944

주최: 강원도민일보,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
주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가족교육연합회
공동주최: 춘천지회, 춘천후원자협의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춘천시, 춘천시교육지원청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지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춘천에 불어오는 제네바 평화의 바람

- 스위스 제네바와 미래의 땅 강원도의 조우
- 2019.9. 21(토)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강원도-GILPP 평화포럼



분단의 상처가 있는 강원도 춘천에 제네바로부터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강원도와 GILPP(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 연구소)는 지난 21일 접경지역인 화천 칠성전망대에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모멘텀을 만드는 것에 대한 협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평화 가치를 증진할 것, 그리고 교류, 공동 프로그램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높은 수준의 협력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어서 춘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강원도-GILPP(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 연구소) 평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평화포럼은 '미래 한국을 위한 국가건설의 원칙'을 주제로 한 아트 린슬리(Art Lindsay)의 기초연설로 시작했다. 이어 인권, 환경, 농업, 법, 도시 혁신, 도시간 네트워크, 춘천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일반인 참가자 100명이 넘게 오는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남북평화에 대한 적극적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GILPP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겠다"며 "세계 각지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PP의 폴 은두키(Paul Ndukwu)는 "이번 행사에 굉장히 만족한다. 특히, 강원도 춘천이란 도시는 정말 아름답고 다시 오고 싶은 도시다."라며 "젊은이들이 한반

도 평화를 원한다면 해외에 나가있는 북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자는 이영길 GILPP 위원의 행정비서로 일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이 일에 투입됐다. 이 일은 불과 2달 전에 계획됐고, 준비기간은 한 달 채 안됐다. 설상가상으로 행사 이틀 전 돼지 열병이 터졌다. 칠원 평화전망대 출입이 금지됐다. 하루 전 업무협약식(MOU) 대체 장소를 찾아 급히 화천으로 갔었다. 20일 만찬, 21일 업무협약식, 평화포럼 각 행사 모두 직전까지 쫓기듯 준비하고서야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준비과정에서 성공에 대한 기대보다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다. 그러나 결과는 모든 행사가 대성공이었다.

도의 한 공무원이 이 행사를 치르고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나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난 성공의 요인을 분명히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필자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을 받았다. 이 일을 시작하고서는 이 일을 통해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임을 보여달라는 필자의 어린 믿음에 이 일을 통해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능력을 드러내셨다. 결과적 성공만이 아니라 촉박한 시간 속에서 강원도, 강원도국제회의센터, 한국기후변화연구원, GILPP 4개 단체의 연합을 허락하셨다. 4개의 단체가 서로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필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 행사에 함께 하셨을까?'에 대해 생각해봤다.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통해 계획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강원도는 남과 북이 갈라진 유일한 도이다. 춘천은 그런 강원도의 수부도시이다. 춘천은 소양강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개전초기, 남과 북이 많은 피를 흘린 지역이다. 또한 번방으로 여겨지는 지역이고, 경제와 문화가 낙후된 지역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연을 담은 강원도 춘천에서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일까? 이번 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기대가 된다. 동시에 폐회사에서 사회자 안동규 한림대 부총장님의 말씀처럼 나도 다음과 같이 묻고 싶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 GILPP(제네바 리더십 공공정책연구소, Geneva Institute for Leadership & Public Policy)는 UN의 NGO 단체인 GHNI(글로벌 국제 희망 네트워크, Global Hope Network International)의 산하 단체로, 매년 유엔 훈련조사연구와 공동으로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주요 세계적, 국가적 이슈에 대한 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한국의 성공적인 빈곤 퇴치 사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적인 화제인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글. 김사무엘
(GILPP 간사)

2019 충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 개최

- ❖ 주제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과 사귄
- ❖ 일시 : 2019년 10월 2일(수) ~ 4일(금)
- ❖ 장소 : 당진동일교회
- ❖ 주최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2019 충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는 세계성시화운동의 철학과 비전에 기초한 3전운동(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을 국내외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며 아래의 대회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성시화운동을 통해 복음전도운동을 확산시키도록 한다.
- ② 성시화운동을 통해 출산운동을 실천하도록 한다.
- ③ 성시화운동을 통해 생명존중운동(자살, 낙태, 살인, 폭력 예방)을 실천하도록 한다.
- ④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좋은 법 만들기 운동을 실천해가도록 한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성시화운동·홀리클럽 회원들이 성시화운동의 비전 아래 연합과 일치의 정신을 강화하여 핵심요원으로 헌신하며, 한국 및 세계의 도시변혁 운동에 동참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가슴을 찢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될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국내외 사역 나눔, 영역별 전략 발표, 말씀과 기도집회, 야외무대에서의 찬양콘서트, 배우 차태현의 '십자가의 길' 공연, 당진 기독교 유산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성시화운동은 한국CCC 설립자 겸 총재 김준곤 목사(1925.3.28.-2009.9.29.)의 기획 주도로 민족복음화운동 차원에서 시작됐다. 김준곤 목사는 1970년 12월 31일 밤 0시 기독교방송(CBS)을 통해 민족 복음화운동을 선언하고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뿌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라고 도전하였다.

그리고 한 도시만이라도 송두리째 복음화하는 모델 도시를 만들자는 목표로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CCC 대학생들과 춘천지역 교회들 공동으로 '춘천 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8,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낮에는 4영리전도훈련을 받고, 오후에는 들쭉 짍을 지어 춘천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시화운동은 전 교회(The Whole Church)가 전 복음(The Whole Gospel)을 전 시민(The Whole City)에게 전하는 3전운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운동이자 총체적 복음운동이다. 성시화운동은 도시를 위한 기도운동, 교인마다 전도하고 시민마다 복음을 들려주는 도시단위 전도운동, 사랑과 섬김의 실천(사회책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수를 믿어 행복한 시민이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음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시화운동은 현재 한국과 미국, 과테말라, 아이티, 캐나다 등 미주와 영국, 프랑스, 독일, 체코 코소보,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과 일본 등 아시아에서 국가 도시 단위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시군, 해외 28개 국가와 도시 성시화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성시화운동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시군마다 강력한 기도팀이 만들어지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운동과 출산장려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2019 충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0월 2일(수)

- 2시_ 개회예배 (설교: 김상복 목사/대표회장)
- 3시_ 해외성시화운동본부 임원단 및 사역 소개(김철영 목사),
- 7시_ 특별공연(골고다 언덕 십자가-차재완 연출)
- 8시_ 저녁예배 (설교: 정성구 목사/전 총신대 총장)

■ 10월 3일(목)

- 10시_ 한국성시화운동본부 임원단 및 사역 소개(김철영 목사)
- _ 세계성시화운동 전략발표(이수훈 목사/상임대표회장)
- 2시_ 특강 :
허분영 박사(복음통일과 영성), 이영구 대사(글로벌 도전과 크리스천 사명), 전용태 장로(좋은 법 만들기 운동), 조영길 변호사(동성애차별금지법)
안창호 장로(기독교인의 리더십)
- _ 세계성시화지도자 총회 및 선언문 발표
- 5시_ 파송예배 (설교: 이진영 목사/인천제2교회)
- 7시_ 찬양콘서트(위로! 희망! 미래!)

■ 10월 4일(금)

당진 인근 기독교 성지 탐방

글/ 편집부

2019 충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

10월 2일 프로그램 (저녁 7-9시)

- 27개국 세계지도자들의 사명보고회
- 차재완 연출(차태현 아버지)과 300여명의 연극배우들이 펼치는 블록버스터급 퍼포먼스

10월 3일 프로그램 (저녁 7-9시)

- 안창호 전 원빈재판관을 비롯한 5인의 석학들이 쏟아놓은 명품 강의
-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장하은, 5개국 중창단, 치어리딩 등으로 꾸며지는 멋진 공연에 당진시민을 초대합니다.

대표회장
김상복 목사(전 뽕골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
전용태 장로(전 임무법인 로고스 대표)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 담임)
이창호 장로(대구서부교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준비위원장
오종성 목사(충성제일장로교회 담임)
유경식 목사(당진성경교회 담임)

일시 : 2019년 10월 2~4일(수~금)

주최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주관 : 2019 충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 조직위원회

주관방송 : CTS, CBS, 국민일보

장소 : 충남 당진동일교회



강원도 그리스도인들의 독립운동1

글. 김동정 장로
(신성교회, 가톨릭관동대 교수)



강원도 그리스도인들은 3·1만세 운동의 성공적인 성과에 힘입어 1920년대부터 민족교육에 의한 독립을 위한 몸부림을 시작되었다. 이 몸부림은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흥천에 낙향한 남궁억 선생의 민족교육과 이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학생들이 그 중심에서 있었다. 1세기 전에 일제로부터 독립하고자 몸부림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교훈을 이 시점에서 되새겨보고자 한다.

기독교계의 학교 설립과 민족교육 : 흥천 모곡학교와 남궁억



남궁억 선생(불굴의 일)

남궁억(南宮億, 1863~1939) 선생은 사상가, 독립운동가, 언론인, 교육자로 서재필·이상재 선생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황성신문을 창간하였다. 황성신문사 사장, 성주 목사, 양양군수를 지내고 배화학당 교사를 9년간 지냈다.

그가 양양군수로 재임할 때(1906.1~1907.5)는 현산학교(1906.7.20 개교)를 설립하여 양양을 비롯한 영동지역 학생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다. 양양군수 관직을 사임하고 상경한 그는 1908년 4월에 강원도의 애국계몽단체인 관동학회(關東學會)를 조직하여 그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교육구국운동의 잡지로서 「교육월보(教育月報)」를 발행하였다.

1918년 건강이 악화되었으므로 친지들의 권고에 따라 12월에 선조의 고향인 강원도 흥천군 서면 모곡(牟谷)리로 낙향하였다. 남궁억은 낙향한 다음해인 9월에 먼저 자신의 돈을 털어 모곡에 땅을 사들이고 남감리교 선교부의 도움으로 건평 30평에 8칸짜리 교회를 세웠다. 그 교회에 모곡학교(牟谷學校) 간판을 걸고 4년제 보통학교 정도의 학과를 가르쳤다. 1923년 3월에 제1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1923년 9월에는 남감리교 선교부와 흥천군 유지들의 도움을 받아 100여 평의 새 교사와 기숙사를 완성했다. 1925



1923년 9월에 신축한 모곡학교 전경

모곡학교에 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조선어, 일본어, 산술, 역사, 지리, 이과, 창가, 영어, 체조, 실업, 공작, 서도(書道), 한문 등을 가르쳤다. 이 중 남궁억은 조선어와 조선 역사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 조선어와 조선 역사 공부를 통해 남궁억은 학생들에게 독립의 희망

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모곡학교에 무궁화 묘포(苗圃)를 만들어 전국에 대한민국의 나라꽃인 무궁화 보급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모곡학교 실습지에다 무궁화 묘목을 심어 가꾸고 이를 전국 각 지방의 사립학교와 교회 등에 기증했다. 무궁화가 국화라는 선전문을 인쇄하여 널리 배포하기도 했다. 선전문은 무궁화의 특징과 세계 각국의 국화를 열거하고 무궁화를 우리나라 역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1931년에는 '무궁화 동산'이라는 노래를 지어 모곡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또한 저작에도 힘을 써서 1924년에 「동사략(東史略)」, 1929년에 「조선이야기」(5책)라는 국사책을 저술하여 국민계몽 및 애국심 고취에 심혈을 기울였다.

1933년 11월 기독교 독립운동의 비밀결사인 십자당(十字黨) 사건으로 일제에게 체포되어 8개월간 투옥되었다. 그러나 일제에게 받은 고문의 여독으로 출옥 후에는 병고에 시달리다가 1939년 서거하였다.

십자가당 사건

일제의 폭압이 가중되던 1933년 4월 강원도 흥천에서 기독교 비밀결사인 십자가당(十字架黨)이 결성되었다. 한 국기독교사상 여러 가지 형태의 항



흥천십자가당사건 기사 (동아일보 1934.4.8.4)

일투쟁이 전개되었지만 국내에서 비밀리에 정당을 결성해 일제와 싸운 것은 십자가당이 유일하다.

십자가당은 흥천 모곡리에서 기독교 민족주의자인 한서 남궁억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 교인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 가운데 '배일의 죄상이 현저'한 유자훈, 남천우, 김복동, 남궁억이 공판에 회부되어 모두 유죄형을 선고받았다. 남궁억은 심한 고문과 옥고로 고통을 받다가 1939년 4월 사망하고, 유자훈은 북영중 감리회동부지구에서 쫓겨났다. 남천우와 이윤석은 출옥 후 집사안수를 받고 감리교 동부지구 목사로 시무하다가 이중 이윤석은 1944년 친일파 교단의 목사들로부터 항일운동가로 지목되어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감리교 교인들로 구성된 십자가당은 종교기관을 이용해 강력한 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나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려던 비밀결사

였다. 그러나 이들은 뜻을 펴보기도 전에 피체되어 일제의 혹독한 탄압으로 꺾이고 말았다. 하지만 이들의 항일구국 투쟁의 신념과 신앙심은 한국기독교사에 고딕체로 기록되고 있다.

춘천고보 상록회와 춘천농교 독서회를 통한 민족운동

춘천지역의 독서회운동은 춘천고보의 상록회로부터 시작되었다. 1937년 3월 남궁태·이찬우·문세현·용환

각·백흥기·조규석 등 춘천고보의 학생들이 상록수라는 비밀결사를 조



춘천고보 상록회 회원들

직하였다. 상록회는 헌신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할 지도자의 양성을 목표로 조직되었던 것이다. 독서회의 활동은 주로 월례회를 통해서였다. 그들은 매월 1회 월례회를 개최하여 독후감 발표회 및 차후 회의 활동방침에 대해 토의하였다. 독서회는 독서 및 토론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춘천농업학교에서도 1937년 11월 이준환(李俊桓)·김재하(金載河)·김시묵(金時默)·김창경(金昌卿)·반영균(潘榮均) 등이 조직하였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준환은 회원들과 함께 남궁억의 제자이며 춘천읍감리교회(현 춘천중앙감리교회) 목사인 유한익(劉漢翼)의 집에 자주 모여 그로부터 시사(時事)에 관한 새로운 교양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독서 및 토론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함양하고 농촌을 구제하는 방법을 찾으려 했으며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매일 조끼회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상록회와 독서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의 영향이 상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록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남궁태, 이연호 등이 기독교 신자로, 춘천고보 졸업 후 경성신학교(京城神學校)에 진학한 남궁태는 남궁억의 친척으로 상록회 조직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연호는 상록회 2기 회장으로 회원들에게 기독교를 신앙할 것을 권유하였다. 춘천농교 독서회의 핵심인물인 이준환, 고광돈 등도 기독교 신자로, 특히 이준환은 고향인 김화군 창도리에서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농촌운동을 해왔던 인물이었다. 이에 춘천지역의 상록회와 독서회 조직과 운동은 기독교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전개되었고 인근 흥천에서 민족교육에 헌신했던 남궁억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 침례식, 2019년 8월 제550차 3,217명 침례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담임목사), 2015년부터 5년 연속 총 18,318명 침례 섬김

군선교는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사역이며, 아주 특별한 선교 곧 생명력 있는 선교이다.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청년전도인 군선교를 열정적으로 실천하는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기하성 군선교위원장,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사장)는 2015년부터 5년 연속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침례식을 섬기고 있다.



지난 8월 10일 제550차 논산 육군훈련소 장병 진중 침례식은 기하성 총회(총회장 유영희 목사)와 순복음춘천교회가 후원하고,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담임 김순규 목사)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박선희 목사)가 주관하여 작년 12월에 완공된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및 야외 대형 침례장에서 있었다.

우리나라 최대의 신병훈련소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청년선교, 거룩한 사명 실천, 다음세대 선교의 중심이 바로 연무대군인교회이다. 연무대군인교회 훈련병의 80%는 군대에 와서 처음 교회를 나오고 있으며, 복음을 통하여 장병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하는 연무대군인교회 사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육군훈련소에서 연 12만 명(신병교육의 50%)의 장병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세례는 연 23~24번으로 7~8만 명이 세례를 받고 있으며, 세례 중에 2번은 침례(7,8월)로 진행되고 있다.

순복음춘천교회는 5년 연속 침례예식을 섬겼는데, 2015년 3,382명, 2016년 4,012명, 2017년 2,878명, 2018년 4,829명, 올해에는 3,217명 총 18,318명의 훈련병 침례를 섬겼다.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 1부 연무대군인교회에

서는 최지훈 목사(입소대교회 담임)의 침례교리문답이 있었고, 연무대군인교회 선교관 중예배실에서는 김순규 목사(연무대군인교회 담임)의 군선교 현황 보고가 진행되었다. 김순규 목사와 구재서 장로(육군훈련소장)의 연무대군인교회 신축 경과와 세례 사역을 듣고, 연무대군인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군선교의 전초기지로서 군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침례를 받을 훈련병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다.

2부 예배에서는 순복음춘천교회 청년부 찬양단과 워십팀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하였으며, 장병들이 함께 찬양과 몸짓으로 하나가 되었다. 김순규 목사의 인도, 오프닝 영상 후 황기현 장로(순복음춘천교회 군선교회장)의 기도, 박태하 목사(기하성 강원지방회 총무)의 성경봉독 후 순복음춘천교회 중고등부 드라마팀의 “하나님의 사랑(창조-타락-구속-부활)” 공연이 있었다. 드라마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장병들이 보면서 함께 호응하고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뜨거운 열기 가운데 이수형 목사(기하성 군선교위원장, 순복음춘천교회 담임)는 고린도후서 2장 14~16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란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이 향기가 더하여지며, 그리스

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다. 오늘 침례를 받는 장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을 갖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말씀 후 박인관 목사(춘천시사회운동본부 이사장)의 격려사, 우시홍 목사(기하성 총회 총무)의 축사, 조돈산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장로회장), 김화숙 권사(순복음춘천교회 총여선교회장), 박두진 안수집사(육군훈련소 MCF회장), 공찬식 집사(연무대군인교회 세례부장)의 축하기념품 전달, 구재서 장로(육군훈련소장)가 이수형 목사에게 기념액자 증정, 라성남 목사(수정순복음교회 담임)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3부로 열린 침례예식은 박홍재 목사(기하성 총회 군목단장)의 침례서약, 김대덕 목사(군선교연합회 총무)의 침례기도, 김순규 목사의 침례공포 후 대형 야외침례장으로 이동해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담임)를 비롯한 40여명의 침례위원(기하성 목회자, 기하성 군종목사, 강원군선교연합회 목회자, 춘천기독교연합회 목회자)과 30여명의 보조위원(순복음춘천교회 장로, 안수집사)이 협력하여 침례예식을 실시했다. 이번 침례예식을 통하여 훈련병 3,217명이 침례와 축복기도를 받고, 하나님



의 자녀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이 날 순복음춘천교회에서는 침례자 선물로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신앙서적, 생필품, 간식 등을 준비해서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순복음춘천교회 황기현 장로(순복음춘천교회 군선교회장)는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을 위하여 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귀한 군선교 사역 감당할 수 있어서 기쁘고, 침례 받은 장병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귀한 믿음의 십자가의 군사들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한편 순복음춘천교회는 이수형 담임목사를 중심

으로 한국교회의 다음세대 청년 전도사역으로 군선교에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 순복음춘천교회가 실시한 군선교 사역은 다음과 같다. △논산 육군훈련소 진중침례식 △21사단·15사단 신병교육대 진중세례 △21사단 사랑의 카페 기증 △부활절 계란 나누기 △사랑의 온차 보내기 △15사단 초급 간부 행복플러스 행사 △기하성 군종목사 간담회 △2군단 연합 찬양제 △2군단·7사단 군종병 신앙수련회 △육군본부·2군단 포병여단·15사단 MCF 조찬기도회 △2군단 공병여단, 포병여단, 춘천공군부대 종교안보 특별교육 △해군 청해부대, 육군 아크부대 15진 사역 지원 △군장병 문화활동(영화관람 등) 및 장병 위문활동 지원 △기하성 총회 임원 2군단 방문 △2군단 초급간부 종교인성 수련회 △군인교회 지원 등

글. 정종승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사설

1996년 9월19일 춘천 성시화운동본부가 창립되면서 거의 매년 기획, 실행하고 있는 ‘성시선교대회’가 오는 10월 첫 주에 열린다. ‘96년 제1회로 개최한 선교대회 당시 10월 첫 번째 주간에’ 성시 주간 ‘으로 선포하고, 9월30일~10월6일까지 한 주간 동안 기관장들과 대회 준비, 실행 위원들이 매일 새벽 교회를 순회하며 예배를 드리고, 주간계획에 따라 성시 토론회, 성시 부흥집회, 명사초청 특강과 기도회, 청소년 자녀 교육특강, 전도 집회 및 총력전도 실시, 특히 넷째 날에는 기독교관장을 비롯한 선교단체, 실행위원 등 헌신자 150여 명이 시내 곳곳을 돌며 거리 전도와 업소방문 전도를 실천하기도 했다. 성시화운동을 주창하게 된 지 46주년, 성시선교대회 개최한지 23년째를 맞이했던 2018 춘천성시선교대회는, “춘천, 살아나라!” 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사장 박인관 목사님의 감사의 글(2018.11월 춘천성시)에 담고 있는 내용처럼, 충

남 당진 동일교회(이수훈 목사)의 개척 20년 만의 획기적인 교회부흥 사례 중심의 강한 메시지를 남긴 가장 의미 있는 대회요, 우리 춘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갖게 해 준 대회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깨끗한 도시”를

2019 "춘천성시선교대회"에 거는 기대

지향하는 성시화운동의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를 생각할 때에,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관 제4조(사업)에 명정하고 있듯이, 우리 고장 춘천도성에 살고 있는 시민 절반 이상이 구원받아, 하늘 시민권을 지니고 사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노력을 춘천의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해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연중 1회에 집중하고 있는 ‘성시선교대회’는 정해진 ‘성시 주간’에 실행하되,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많은 시민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는 프로젝트 개발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올해 ‘성시 주간’인 선교대회 기간 중에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의 잔치 수준을 넘어, ‘시민을 위한 대형 바자회’ 또는 행정 읍면동 단위 교회연합으로 ‘이웃 시민 섬김 바자회’를 마련하여, 교회연합 복음전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한다.

아무튼 2019 성시선교대회는, 예년에 치러졌던 선교대회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웃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므로, 춘천의 복음화율이 상승되고, 성시화의 목표가 앞당기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해 본다.

글. 김영명 장로
(순복음춘천교회, 전 춘천율리클립 회장)

2019 시카고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에 다녀와서



2019 시카고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이 9월 10일(화)~12일(목)까지 시카고한인연합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한민족 통일 선교 서밋은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따른 한국교회와 미주 내 한인교회의 통일 선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트 워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국내외 해외 한인교회들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통일 선교의 연결점을 찾게 되면 보다 효과적인 복음 통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국내외에서 통일 선교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과 현장 전문 사역자들이 모여서 진지한 논의와 기도를 가졌습니다.

시카고 지역에서 이런 통일 선교 서밋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시카고 지역 목회자들 중에서 이미 미국 시민권을 갖고 오래전부터 중국이나 북한을 왕래하면서 북한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역 목회자들의 통일 선교에 대한 아름다운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내외 지역에서 7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30여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시카고에서는 주빌리 대표로 섬기시는 명병현목사를 비롯한 다수의 목회자들이 참석했고, 시애틀에서도 권준목사(주빌리 공동대표, 시애틀 형제교회)를 비롯한 몇 분의 목회자들이 참석하고, 뉴저지에서 이정환목사(뉴저지 주빌리 대표, 뉴저지순복음교회)를 비롯한 몇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고, 워싱턴과 애틀랜타에서도 참석했으며 독일 베를린에서 사역하는 김현배목사(베를린 비전교회)도 함께 했습니다.

서밋의 진행은 첫날에서 오프닝 예배(이종한목사, 제주 아름다운교회) 후에 현장 사역자들의 간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천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는 신영옥목사(예사광선교회)의 현장 체험 이야기와 중국에서 탈북민을 섬기다가 2년 6개월간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나온 온성도선교사(통일소망선교회)의 간증은 모든 참여자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오

른 집회로 주빌리 공동대표이자 상임위원장인 정성진목사(거룩한빛 광성교회)가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전해 주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기조 발제로 하광민목사(통일전략연구소장)가 “한반도 통일 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고, 주제 발표로는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회장인 김영식목사(포타 미션)가 “새 시대를 위한 성숙한 연합과



역할”이란 주제로 나누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분과별 소그룹에서는 북한 인권, 탈북민 사역, 대북지원과 협력사역, 전문 영역(과학, 미디어, 예술, 체육, 교육, 다음 세대 등), 통일 목회, 한인 디아스포라와 기도 사역 등 전문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폭넓은 시야를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주빌리 공동대표이신 박성민목사(한국 CCC 대표)가 “행동하는 신앙인”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어 큰 은혜가 되었으며,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날에는 서밋에 참여한 분들 모두가 참여하여 결의문을 작성하고 채택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는 한국에서 참석한 사역자들이 시카고 지역 교회들에 금요기도회나 주일예배를 설교로 섬기면서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카고 통일 선교 서밋에 참석하게 되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의 통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12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를 회상하면서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으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사(大事)를 이루셨기에 가능하다는 고백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꿈꾸는 것과 같이 이뤄질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까지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함께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합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통일 선교를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각 차이가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상호보완적으로 통일 선교를 바라보는 시야를 폭넓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긴밀한 연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통전적인 통일 선교 정책을 마련하고 국내외적인 결집된 기도의 힘이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을 확신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카고는 1871년 대화재로 폐허가 되었던 도시가 건축 공학자들을 비롯한 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재건되면서 아름다운 호수와 강이 멋진 건물들과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너무나 멋진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넓게 펼쳐진 평지로 인해 탁트인 하늘과 자연이 주는 맑은 공기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시카고 한민족 통일선교 서밋을 통해 통일 선교에 대한 보다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새로운 원코리아, 뉴코리아에 대한 환상을 갖고 돌아오게 된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 이병철목사

(주향교회, 성서본부 부본부장)

영 화

천로역정 - 천국을 찾아서



성경 다음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이 팔렸다는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필자에게도 성경 다음으로 각별한 책이다. 중고교시절 집의 책꽂이에 언제부터였는지 문학전집 같은 책이 한 두어권 있었는데, 세계문학을 번역한 것을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편집한 책들이었다. 그 중 천로역정이 있었는데 고1부터 교회를 다니던 필자에게 참 신선하고 기막힌 감동으로 새겨지면서 초등시절부터 만화를 즐겨 그렸던지라 만화로 옮기면 어떨까 하는 특별한 상상력과 영감의 자극제가 되던 차 당시 교회 고등부에서 매년 회지를 발간하였는데 고3 예비교사를 마치고 회지 편집을 하는 중에 결국 그 천로역정

을 만화로 옮기는 기염(?)을 토해내게 되었다. 동사 프린트로 회지를 발간하는 형편이었는데 가리방 위에 등사용지를 철필로 긁어가며 정신없이 그려내었다. 회지 전체 삼분의 일을 차지하는 분량으로 작업한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서툴고 조악하여 인쇄 품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내세울 만하지 못한 부끄러운 작품이지만 인상적인 경험의 하나가 된 것은 틀림없었다.

알고 보니 천로역정은 필자가 읽은 것보다 상당한 분량의 문학작품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아직 다시 읽어보지는 못했다. 천로역정이 그렇게 대단한 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도 말이다.

어쩌면 다른 제대로 된 만화나 연극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영화로 만들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차에 올해 드디어 온전한 작품성을 가진 영화로 반갑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실사가 아닌 애니메이션이지만 본격 장편 영화로 만들어진 획기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원작의 깊고 은혜로운 의미를 잘 살린 각색에 섬세하고 놀라운 예술성의 미감으로 이룩해 낸 아름다운 미장센의 CGI 애니메이션으로 자연스럽고 설득력 강한 대사와 연출로 대단한 몰입도와 함께 감동적인 영화가 되었다. 최악으로 어두운 멸망도시를 떠나 천국도시로 향하는 '크리스천' 이 수많은 유혹과 고난에 맞서 믿음의 여정에서 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전도자', '해석자' 부터 가지 말아야 할 길로 '크리스천' 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 잘난', '아불루온' 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영화 속, 다양한 인물의 등장과 시험, 고난은 우리에게 험난한 여행길을 보여주며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와 세상의 모든 힘보다 강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순례의 삶을 보여준다. 세상과 육신의 무거운 짐을 지고 수많은 착오와 유혹의 험난한 길 가는 중에 마침내 짐을 내려놓고 자유하면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의 천국문에 이르는 과정이 참으로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뛰어난 작품성과 완성도를 보여준다.

이 영화는 두 편으로 기획된 것 같은데 크리스천 본인의 구원을 다룬 상권이 '천국을 찾아서' 로 나온 것이고 다음으로 하권의 그를 뒤따르는 가족들의 순례가 나온다고 한다.

기독교 방송 CBS-TV가 야심적으로 제작에 참여했고 신예 감독 로버트 페르난데스의 각본과 연출로 할리우드 유명배우들의 목소리와 함께 은혜롭고 아름다운 배경음악으로 수많은 관객을 사로잡는 명품의 감동을 보다 많은 성도들이 맛볼 수 있기를 권면한다.

글. 김춘배 화백
(편집위원, 화목교회 집사)

잠깐

성소수자라는 단어의 함정과 그리스도인의 자세

'성소수자' 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을 묻는 분들이 더러 있다. 동성애를 옹호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sexual minority)란 원래 남자 동성애자(게이, gay), 여자 동성애자(레즈비언, lesbian), 양성애자(바이, bisexual) 등을 지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요즘은 트랜스젠더(transgender), 젠더 퀴어(gender queer), 간성(intersex)도 포함해 성소수자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앞글자만 따서 LGBT로 표현하기도 하다. 최근에는 성소수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LGBT가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적인 취향을 가진 그룹들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확장되고 있다.

위키디피아 역시 동성 간 성행위자 권리운동 초기 이후 계속 달라지고 있는 성소수자의 범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성소수자는 매우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위낙 다양한 성소수자 집단이 존재하는 관계로 그와 유사하게 사용하거나 하위 집단을 일컫는 다양한 용어와 신조어들이 존재한다.

... 결론적으로, 성소수자는 현재로서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되지 못한 단어이다. 즉 표준어가 아니며 정확한 뜻도 정의되지 못하고 있는 '은어'에 가까우며 일부 변태 성욕자까지 포함되기도 하는, 그 범주가 모호한 용어이다. 고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단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확한 의미의 단어로 그릇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소수자' 라고 하면, '약자, 피해자, 선한자' 라는 이미지가 중첩되는 느낌이 드는 단어라고들 한다. '다수자' 라는 단어는 그와 반대로 '강자, 가해자' 의 이미지가 은연 중에 묻어나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동성애 옹호 진영이 악용하여 미혹하는 언어 전술임을 알아야 한다. 한가협 중에서

글. 김지연
(한국가족보전협회 대표)

2019 한국 CBSI 공동체 성경공부 10주년 감사예배

2019년 10월 9일(수) 오후 4:00 장소: 춘천 세종호텔 정원

2019 동아시아 태평양 CBSI 지도자 컨퍼런스

2019년 10월 9일(수) - 12일(토) : 장소 춘천 세종호텔 컨벤션 홀



CBSI 공동체 공부는 1975년 미국 워싱턴 D.C. 근처에서 말씀 공부에 갈급한 몇몇 여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성경공부하던 평신도 성경공부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 성경공부에 참여한 여성들의 변화는 남편들과 자녀들의 변화로 이어졌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2019년 현재, 미국에는 각 도시에 많게는 10개, 적게는 1-2개의 동아리에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약 80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110여개 나라로 확장된 국제적인 성경공부 단체이다.

CBSI 성경공부 교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

나님의 말씀으로...”라는 꿈을 실현해 가고 있다.

또한 CBSI 공동체에 속한 회원들은 “깊이 있는 성경공부로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사명 아래 성경공부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로 세워지고, 각 지역 교회에서 지도자로 헌신하고 있다.

한국 CBSI 공동체 성경공부는 (Community Bible Study International)은 2009년 10월, 춘천에서 10여 명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권태환 명예 교수 부부를 춘천 금병산 자락에 기도와 섬의 집 예배당을 시작하게 하였고, 미국에서 기독교 방송국 BBN(Bible Broadcasting Network)에서 사역을 하던 중 건강 악화로 귀국했던 노예복 목사 부부가 예배당을 방문하며 작은 성경공부 모임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서울 경기, 중부, 호남 제주, 영남, 영서, 영동 경상 지역 등 6개의 지역 본부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회들과 초교파적 모임으로 확장되었다.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성경공부 전 교재를 권태환 교수(한울섬김교회 장로)가 파킨슨씨 질병과 싸우며 한국어로 완역을 했다.

공동체 성경공부를 통해서 10년 전, 건강한 작은 교회로 널리 알려진 한울섬김교회가 세워졌다. 매년 2-3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수백 명의 목사들이 이 성경공부를 소개받았고, 교회에 집목하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다. 현재 지역 목사님들도 매주 성경공부 동아리로 모이고 있고, 직장

과 지역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의 모임이 활성화되

고 있다. 공동체 성경공부의 특징은 깊이 있는 성경공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깊이 있는 성경공부란, 정해진 본문을 첫째,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둘째, 공동체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의견을 듣고, 셋째, 영적 지도자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고, 넷째, 신학자들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 받고 마지막 회원 상호 간 사랑으로 말씀이 생활화 되도록 격려하고 돌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한국 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는 노예복 목사(한울섬김교회)는, 제자 훈련을 충실히 해 온 교회, 성경공부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 평생 일관된 성경공부 교재를 찾고 있는 교회, 자연스러운 제자 훈련 방법을 찾고 있는 교회, 전 세대가 함께하는 성경공부를 찾고 있는 교회, 경건의 시간과 성경공부가 통합된 교재를 찾고 있는 교회, 성경공부 교재를 구입할 수 없을 정도 열악한 작은 교회에게 CBSI 성경공부를 적극 추천하고 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섬겨온 한국 공동체가 춘천 세종 호텔에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 이번 감사 예배에는 미국 본부 총재 등 CBSI 지도자들이 함께 하여 축하한다. 이어서 동아시아 18개 나라 CBSI 지도자 150명이 한 하나님, 한 백성, 한 사명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태평양 국가 섬김이 컨퍼런스” 지도자 대회를 12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글. 노예복 목사

(한국CBSI 대표, 한울섬김교회)

24Hours Worship Gathering in Chuncheon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

주 관 : 24시간 연합예배 네트워크
일 시 : 9월 27일 저녁 6시부터
9월 28일 저녁 6시까지
장 소 : 춘천시 세평로 5 주향교회
연락처 : 010-6786-3719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94차 춘천모임

◆ 강사 :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 회장 김영식 목사 와 회원 사역자

◆ 일시 : 10월 14일 (월) 저녁 7:15

◆ 장소 : 주향교회

◆ 문의 : 010-6254-3162

복음적 평화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춘천모임

남/여 신학생·편입생
(목사·전도사 수시모집)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아래) 6학기	●세례를 받은 자 ●성령이나 영성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동등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연구원	(주/아래) 4학기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됨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소개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신학으로서 최고의 학업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입니다. 본 교단은 여목제도가 있습니다.

▶특전
방학일이 2년 8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여목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회기적인 장회제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통신 과정 이수 가능)
본 과정은 서울 본원과 각 지역 캠퍼스와 동일함

▶입학시 구비서류
입학원서, 사진, 신분증 사본
편입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통신학생 모집 학과 : 신학과 목회학과
교재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수업이 가능하며 2년 8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수료 후 본교단에서 목사 고시 본 후 안수를 받을 수 있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강원신학 춘천캠퍼스 수시모집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32-1(교동동 710-17) 033)243-5354

안디옥교회 100주년 감사예배



안디옥교회 100주년 감사예배가 8월 4일(주일) 오후 4시에 안디옥교회(유진형 담임목사)에서 드러졌다. 이날에는 100주년사 출판기념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안디옥교회는 1919년 8월 2일 유한익 전도사가 춘천군 신남면 퇴계리 박수근 가족 건물에서 퇴계리 교회로 시작했다. 1941년 일제에 의한 강제 폐교 후, 1945년에 다시 문을 열었다. 1989년에 유진형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 후, 2005년 춘천안디옥교회로 개명하였고, 현재의 교회를 건축 완공했다. 춘천 안디옥교회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춘천 챔버뮤직, 연합찬양대합창, 성시낭독 등 기념음악회를 진행했다. 또한 8월부터 10월까지 기념바자회와 구역초청 축제, 성경통독대회, 부흥회 등도 개최했다.

8.15 광복 74주년 기념 연합예배



8.15 광복 74주년 기념 연합예배가 8월 14일(수) 저녁 7시에 춘천기독교목회자연합회(회장 조용아 담임목사) 주관으로 온누리교회(김창환 담임목사)에서 열렸다. 연합예배는 수석부회장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의 사회로,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위정자를 위하여”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가, “남북의 평화와 통일과 그 여정을 위하여” 피종호 목사(나눔성결교회)가, “춘천의 성시화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박인관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광염교회)가 대표기도를 했다. 이어 온누리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회장

조용아 목사(성광장로교회)의 인사 및 강사 소개가 있었다. 이날 초빙된 강사인 류영모 목사(일산 한소망교회)는 느헤미야 1:3~5 성경본문으로 “무너진 성벽을 세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회계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의 봉헌기도, 총무 차성희 목사(샘밭침례교회)의 광고가 있는 후, 김종익 목사(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홀리클럽 100주년 기념 기도회



홀리클럽 100주년 기념 기도회가 8월 25일(주일) 오후 2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담임목사)에서 홀리클럽(조정일 회장) 주최로 열렸다. 이날 초빙된 강사는 박한나 목사(고 김익두 목사 손자 며느리)로 북한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10곳의 감옥을 전전하며 믿음을 지켜낸 간증을 전해주었다. 100주년을 맞아 북한 지하 교회와 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제93차 춘천모임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제93차 춘천모임이 9월 9일(월) 저녁 7시15분에 주향교회(이병철 담임목사)에서 열렸다. 타키토 준 목사(일본 신시로 교회)와 자와메키 찬양단(타키토 히라쿠 목사)와 40여명의 일본성도들이 방문하여 지역교회 목회자 성도와 함께 기도회를 가졌다. 94차 춘천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가 10월 14일(월) 저녁 7시15분

에 열린다. 강사는 북한사역목회자협의회(회장-김영식목사) 회원 사역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9 YOUTH 부흥회



강원도(춘천) 중, 고, 청년, 대학 연합으로 모인 2019 YOUTH 부흥회가 지난 8월 2일(금) 저녁 7시에 신성감리교회(박상철 목사)에서 열렸다. 안산 YFC 주관으로 열린 본 부흥회에서는 청소년 대학생들의 찬양과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를 다룬 뮤지컬이 공연되어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탈북민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 체험행사



화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 체험행사가 7월 6일(토) 소양성결교회(김선일 담임목사)에서 한정협 주회, 춘천기독교연합회(김종익 회장) 주관으로 열렸다. 소양성결교회 40여 섬김이들이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춘천 시내와 도시를 돌아보고, 식사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박인관 이사장)에서는 8월 23일(금) 오전 7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부이사장)에서 열렸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10월 성시선교대회 준비와 신임 사무총장 선임 건에 대해 논의했다.

취재 / 사진. 이은정 사무국장

행사안내 및 인사동정

■ 춘천성시선교대회 준비기도회

일시 : 9월 30일(월) ~ 10월 4일(금)

장소: 순복음춘천교회

주관: 홀리클럽

■ 홀리클럽 101회 기도회

일시: 10월 3일(목) 오전 6:30

장소: 신성감리교회

주관: 홀리클럽

■ 홀리투어

일시: 10월 3일(목) 오전 8시

장소: 서울 정동교회,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주관: 홀리클럽

문의: 조정일 회장(010-8879-9033)

■ 춘천기독교연합회 24차 총회

일시: 10월 24일(목) 오전 11시

장소: 순복음조은교회

주관: 춘천기독교연합회

■ 제33회 춘천연합찬양축제

일시: 11월 2일(토) 저녁 6시30분

장소: 춘천문화예술회관

주관: 월드비전

■ 춘천교경협의회 총회

일시: 11월 4일(월) 오전 11시

장소: 춘천경찰서

주관: 춘천교경협의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총회

일시: 11월 7일(목) 오전 11시

장소: 미정

주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인사동정》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부임

김훈 목사

춘천 출신

서울신학대학원 졸업

2005년 목사 안수

전 새춘천교회 부목사

YWAM 하와이 열방대학 DTS 수료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올리클럽 (올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박수달 셋째 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현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올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단원 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강교회
 문의 : 010-2529-6193(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일주일에 두 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무안길 6번길 18
 문의 : 010-3180-5330(지도 김귀선)

춘천올리테오 사모합창단 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6378-2261(지휘자)

교회음악 (지휘)스터디 모임

일시 : 매 금요일 오전 10~12시

장소 : 효자동 주민센터(부안초 근처)
 시몬피아노 교습소

철문산악회 (기독교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총주 산행
 문의 : 010-8798-8732(정학수)
<http://cafe.daum.net/ccjnm>

교역자 축구선교회 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 010-5372-6200(지용찬 목사)

목회자 축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축구장
 문의 : 010-5596-3702(홍우 최재영 목사)

한마음 탁구회

일시 : 매일 아침 7시30분
 장소 : 다들거리(후명1단지 시장 입구)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4306-3818

합기도 선교회원 모집

대상 : 목회자 및 자녀와 성도
 장소 : 합기도선도관(백골관 앞)
 문의 : 010-3585-3620(이영규 목사)

행복재가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지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한 분
 문의 : 010-7757-4972

춘천일일선교회합창단 단원모집

대상 : 찬양선교의 뜻이 있는 분
 일시 : 매주 화 저녁6:30
 문의 : 010-7390-0448 / 010-5685-5612

춘천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일시 : 매월 둘째주 월요일 저녁7:15
 장소 : 추암교회
 문의 : 010-6254-3162

춘천통일광장기도회

일시 : 매월 넷째 주 월요일 저녁8시
 장소 : 석사교 하천무대
 문의 : 010-8377-5373

예수전도단 화요일모임

일시 :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장소 : 공간나눔(식주 128 지하1층)
 문의 : 010-5541-6962

춘천노해미아국가기도회

일시 :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8시
 장소 : 베드로선교센터
 문의 : 010-8801-1149

데이비드차 목요일기도회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 동북교회(춘천로 380)
 문의 : 010-2278-5996

춘천 이스라엘 기도회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장소 : 푸른초장교회(수동골길 19)
 문의 : 010-5341-4150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출 강은주 경동천 고순덕 고정희 권혁국 권 한국주영 권경애 권여림 권영자 권유민 권혁자 권혁재 권현성 김경순 김경애 김경희 김관수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기영 김도희 김두철 김예은 김영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라 김미라 김미숙 김민성 김보경 김복삼김복자 김성목 김성화 김성수 김철아 김성국 김성희 김세환 김수연 김수일 김숙희 김순덕 김순옥 김순희 김순희 김영관 김영명 김영수 김영순 김영일 김영태 김영희 김예은 김옥선 김옥선 김용배 김용기 김원중 김은아 김은희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에 김정의 김정희 김종숙 김종숙 김종익 김종찬 김종희 김주봉 김주혁 김지영 김준화 김태균 김태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목 김혜민 김화본 나정희 남궁영숙남궁자 남준성 남하은 노길자 노문미 노정희 류현구 문현숙 민경연 민병순 민병일 민병일 박 현 박강출 박건성 박금화 박금희 박노향 박덕남 박동호 박동환 박만구 박영관 박문순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상준 박성혁 박선옥 박소영 박순배 박애자 박영호 박옥화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종일 박주환 박지민 박지혜 박지환 박장범 박준자 박필상 박형덕 박혜성 박 희 박희삼 방진선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백광일 서경숙 서요석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완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은민 손학균 송갑수 송미화 송수정 송영민 송정식 송창근 신건호 신경자 신금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안성 신영선 신옥섭 신옥자 신문수 신동희 심규환 안순연 안현나 안현주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중 엄기홍 엄해련 여경구 연승옥 연정화 엄은희 오성남 오재영 오홍금 오홍수 용애중 용영목 원병영 원선미 원예슬 원유미 원화숙 원희정 유 근 유동원 유병준 유성현 유영재 유용균 유재관 유정희 유정선 유정순 유정희 유희자 윤금숙 윤기춘 윤성자 윤애자 윤영기 윤은미 윤은옥 윤정녀 윤정희 윤학범 윤옥목 이가현 이광재 이광필 이규현 이기환 이동현 이영숙 이영순 이무식 이문희 이미숙 이미영 이병일 이병철 이봉연 이성도 이성숙 이소영 이숙희 이순자 이숙희 이연화 이연희 이영규 이영문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원래 이원숙 이원일 이원규 이원주 이원경 이원진 이재곤 이재선 이재미 이종환 이종현 이주영 이지영 이지영 이지는 이진주 이창주 이천희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현석 이현아 이혜란 이혜목 이효민 이희화 임대수 임미화 임소희 임순희 임병용 임문희 임인숙 임재철 임정용 장기영 장동자 장소영 장지원 장진호 장창순 천문배 전정희 정계지 정국환 정규시 정영목 정복희 정선문 정성목 정우진 정유민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선 정인숙 정인숙 정재인 정종용 정주환 정지혜 정진호 정지용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남진 조문산 조성균 조성경 조소현 조영순 조영숙 조원순 조원비 조정섭 조종현 조진경 조현목 주영호 주신자 지문성 지정훈 이재관 이재관 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돈식 최동규 최영기 최문수 최미혜 최민희 최선아 최선혜 최선희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태 최승화 최원화 최영순 최영희 최예생 최옥순 최원영 최은숙 최은순 최인숙 최재중 최정락 최홍대 최홍민 탁광희 피종호 하문목 한영수 한순숙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희현 허순영 허 업 허인영 허정자 현연희 현재용 홍순복 홍영숙 홍은숙 홍의표 홍인숙 홍은애 홍택기 홍재림 황금성 황기현 황병찬 황은주 황정숙 황태홍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가성침례교회 그말샘영문교회 금산교회 나동성교회 동신성교회 사랑의교회 사립성교회 새춘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영원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복교회 신성감리교회 아이교회 엠마오교회 예사랑교회 예수교회 옥산포교회 은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주일교회 주안교회 주향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예림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춘천평화교회 한빛교회 한울성교회 화곡교회 협동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춘천와이신팀 명광한의원 매일관광 행복재가요양기관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아가센터리 베드로선교센터 월드비전 설곡산기도원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

춘천성시신문을 개별 배송 원하시면,
 이름과 주소를 문자로 남겨 주세요.
 (033-256-1260)

47주년 춘천성시선교대회

주제 : 나라가 임하시오며(마6:10)

- 일시 : 10월6일(주일)~12일(토)
- 장소 :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10/6(주일)	10/7(월)	10/8(화)	10/9(수)	10/10(목)	10/11(금)	10/12(토)
오전 10:00		교회 부흥전략 집중세미나 (김홍양 목사)					글로벌 6K 경기대회 (월드비전)
저녁 7:00	선교대회 (주강사 : 김홍양 목사)				전도사관학교	청소년축제	
	기독교연합회	올리클럽	복지단체	선교단체	이수형 목사	불세상춘천	



주강사
김홍양 목사
 (수지선교회,
 강소형교회총연합회 대표)



진도집회 강사
이수형 목사
 (당진동일교회, 전도사관학교,
 세계성시화운동본부상임
 대표회장)



이사장
박인관 목사
 (춘천광명교회,
 강원 CBS 운영이사장)



부이사장
이수형 목사
 (순복음춘천교회,
 세계성령충양협의회
 대표회장)

주최 : 춘천성시화운동본부